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에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클립



빛의 숲 광림 가족축제,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10월 9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제6회 광림 한마음 등산대회 열려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진 10월 9일(수), 한글날 경기도 남양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제6회 광림 한마음 등산대회가 열렸다. 광림실업인선교회(회장 권후원 장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교인이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등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친교의 장이었다. 이번 한마음 등산대회는 2019년 이후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더욱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아침 9시 즈음이 되자 성도들을 태운 각 교구 버스가 속속 도착했고, 행운권과 기념품 모자를 받은 성도들은 개회 예배에 참석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시편 24편 3~5절 말씀으로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누가 여호와와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여야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아름다운 찬양이 구암산 산줄기까지 가득 울려 퍼지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

예배 후 커팅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등산대회가 시작됐다. A코스는 1시간 내로 소요되는 부활 코스로 14개 성물을 지나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길이고, B코스는 두리봉 등산로를 따라 북한산공원까지 가는 2시간의 여정이었다.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 가을 풍경을 배경 삼아 등산을 마친 성도들은 오색빛갈비빔밥과 과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 후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시작됐다. MC 심목민의 사회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퀴즈와 게임, 장기자랑을 통해 선물이 제공됐다. 맑은 자연이 펼쳐진 탁 트

인 야외에서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일렉 바이올리니스트 KoN의 연주가 이어졌다. 평소에 자주 듣고 부르던 찬양이 바이올린 선율로 전해져 가을의 낭만과 풍요로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뒤를 이어 새신자 환영, 보물 찾기, 행운권과 경품 추첨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TV, 에어컨, 음식을 처리기 등 푸짐한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에는 혹시라도 내 번호가 호명될까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고, 당첨자가 선물을 받을 때는 큰 박수로 함께 기뻐했다.

권후원 장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2,00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걷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등산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김정석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수개월 동안 행사를 준비

하고 함께 기도해 준 실업인선교회 회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7시간가량 진행된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정석 담임목사는 오늘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한 실업인선교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가을의 좋은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은 물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었다. 한마음 등산대회! 마지막 주변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성숙한 광림 성도들임을 보여주었다.

한혜선 기자



너의 조성자가 말씀하느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사 43:3)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셋째,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자유함,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넷째, 심판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은 이사야의 본문은 참으로 깊은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관계 정립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 존재, 내 생의 목적, 내 삶의 모든 여정, 내 운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조금도 다치지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들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순결한 사람들로 새롭



이사야 43:1~7

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

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

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게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끝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개인적, 곧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모리스 와그너(Maurice Wagner)에 의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구성하는데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 둘째는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가치감, 셋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소속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자신감에서 사명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자신감이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43장 3절은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죄악과 사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고,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당했습니다. 애굽이 망하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곧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댓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스와 스바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사랑하기에 희생을 치르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속죄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채플, 교육동, 기숙사 건축을 통한 새로운 비상

잠비아 루사카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 신학교, 잠비아 광림신학교,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초등학교, 광림스쿨

미래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그러나 아프리카 남부 내륙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잠비아에는 에이즈와 조혼의 문제, 심각한 기아와 식수 부족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35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하고 부족 중심의 문화가 있어 정부 주도의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이며 국민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이 애니미즘과 결합된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세계에서 조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조혼 문화는 오래된 악습으로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딸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어린 여자와 결혼하면 에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미신 때문에, 또 결혼 지참금이 없는 사람들이 옆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결혼을 합니다. 잠비아의 조혼 문화는 여성의 인권문제를 넘어 가정 파괴, 장애아 출산, 빈곤의 대물림 등으로 이어지며 잠비아 정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2018년 잠비아를 방문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조혼 문제와 종교 혼합 문제 등, 절망과 슬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비전을 전하기 위해 미션센터를 세우기로 계획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인식개선을 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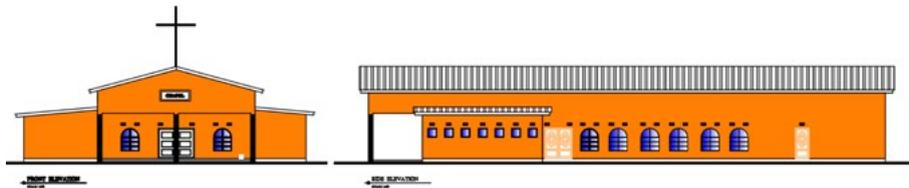
2022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시작된 공사는 2023년 세 동의를 완공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신학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잠비아의 기독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애니미즘과 신비주의, 잘못된 신학으로 인한 혼합 종교의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 미국 웨슬리 신학교와 함께 40명의 신학생을 모집해 교육을 하고 현재 2년 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시작한 초등학교도 현재 두 개 학년을 운영 중입니다. 매년 한 학년씩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할 때쯤, 직업교육과 함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담임목사님의 선교 비전에 따라 잠비아 미션센터 안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선교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8개국과 잠비아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기준에 맞는 교육동 추가 건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공간인 채플 건축을 통해 잠비아 땅에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10월 15일 개최합니다. 선교회와 기업의 후원도 있지만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아프리카 땅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광림의 제단을 통해 이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고3·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
10월 5일 ~ 11월 1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선교회 선교 바자회
10월 15일(화) 밀레니엄광장에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열린다.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
10월 17일(목) 육·해·공·해병대
6개 부대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개최된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장재관 장로)는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본당 1층 로비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부분 동전을 가정이나 사무실의 책상 서랍 속 또는 저금통에 넣어 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동전 액면가 보다 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10원 동전 원가는 77원)이고 한국은행은 폐기 주화를 비철금속 원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어 동전이 유통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사업위원회 임원들은 10월 6일 주일 1, 2, 3, 4부 예배 후에 원하는 성도들에게 저금통을 배부하고, 본당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했는데 행사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취지를 알고 온 성도들이 집에 있는 저금통을 갖고 와서 넣고 가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주일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총 8회 실시되며, 본당뿐만 아니라 지교회에도 함께 하며 지교회는 한 주 앞선 11월 17일까지 받게 된다.

이번에 모금하게 되는 금액은 교회 청년선교국을 통한 사회사업이나 연탄봉사 활동에 쓰

이며, 외국 동전은 따로 취합하여 월드비전 등 사회단체에 후원할 예정이다.

장재관 장로는 "이번 행사는 사회사업위원회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게 된 행사로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동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현재 사색에 어르신 섬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회사업이라는 선한 사역 활동이 있다면 이를 발굴,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동전 모으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문의 : 강성용 권사(사회사업위원회 총무)
010-5258-7646

이득섭 기자

담임목사 동정



- 10/6 신길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 10/9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
- 10/12 추계산상기도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한마음으로 통(通)했던 등산대회 이모저모

‘빛의 숲 광림 가족축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등산대회였다. 약 2,000명의 성도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등산 코스, 식사, 차량 이동, 주차, 주변 정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등산 코스는 메인 행사장을 가운데 두고 A코스, B코스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코스 중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즉석사진관인 ‘인생네컷’과 커피·팝콘·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 물설매장 같은 코너들이 준비되어 성도들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24 잠비아 미션센터 채플 · 학사동 · 기숙사동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선교바자회

· 일 시 : 2024.10.15(화) 오전 8시~오후 5시 [트리니티 성경공부 전후]

· 장 소 : 광림교회 밀리니엄 광장

의류	식품	잡화	기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티크 (티셔츠, 니트, 가디건, 플리츠[자켓 바지, 스커트], 스카프, 양말 등) · 다크포피(밍크) · 백유선디자인어 · 티파니 · 에덴 · W클로젯 · 파스텔 · 숙녀복(이원재) · 지은혜 제이스 클로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홈메이드식품 (호두파이, 라자나, 패션후르츠칩, 키위잼, 다마리간장) · 건어물 · 젓갈(백명란, 오징어젓, 낙지젓, 새우젓) · 국내산 고춧가루 · 죽(호박죽, 팥죽) · 노가네 장뇌삼 · 문수산 표고버섯 · 꼬마류 육포 · 태양식품 건조과일 · 하은이네 과자 · 약 초마을 도라지청 · 우리곡간 현미누룽지 · 바다향기 건갈치 · 이수유통(홍합, 어포) · 된장 · 고추장 · 간장 · 구운소금 · 참기름 · 들기름 · 깨소금 · 들깨가루 · 흥어무침 · 계란 · 훈제오리 · 갓김치 · 버섯 · 순대 · 과일 · 떡볶이 · 해물파전 · 녹두전 · 식혜 · 갯잎김치 · 반찬 · 돼지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티크 (가족가방, 골프 핸드백, 손수건, 약세서리, 운동화등) · 로보로 기능성 신발 · 뽀미네(스카프, 가방, 이불) · 스와르브스키 · 에덴 약세서리 · 아로마더 유기농 공간향수 · 웅진 헬스원 화장품 · 실리곤 주방용품 · 송월타월 · 온누리잡화 · 약세서리 · 화장품 · 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 뽀미뮌스크 향수 2종 · 덴비 · 광주요그릇 · 비타민C · 여성 애장품 (의류, 잡화) · 아나바다

· 문 의 : 여선교회총연합회 [02-545-9624]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희망! 도약! 동행!’을 주제로 10월 12일 본당에서 열려



2024년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10월 12일 (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가 주관하는 산상기도회는 일 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봄에는 광림수도원에서, 가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도회는 광림교회 전교인을 비롯하여 남교회,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성도들도 참석하여 본당 예배실을 가득 메웠다.

<희망! 도약!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추계산상기도회는 30여 가정 스테반 가족 찬양단의 찬양과 남성성가단의 특송으로 시작되었고 김정석 담임목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2부 기도회 시간에는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개인,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나라와 민족, 복음적 통일을 위해 그리고 나라 안에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도 조속히 폐지되기를 기도했다. 한국 교회를

이끌 영적 능력과 힘을 광림교회에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부르짖었다. 튀르키예 안다옥 개신교회가 재건되고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채플, 교육동, 기숙사동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선교의 사명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또한, 10월 총력 전도의 달을 맞아 구령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시길 간구했으며 아픈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과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호두과자와 생수가 제공되었고 교육국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기도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우수 참여 선교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박기연 장로는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개인과 가정마다 믿음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는 광림교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유병권 기자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

10월 17일(목)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에서 열려



광림교회는 10월 17일(목)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개 부대에서 제26회 통일성취기도회를 개최한다. 1999년에 시작된 통일성취기도회는 해마다 광림교회 성도들이 전방부대를 찾아 분단의 현장을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말씀과 기도, 위문품을 전달하며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올해도 선교구별로 육군 6사단(2, 10선교구), 12사단(5, 6선교구), 25사단(8, 9선교구)과 공군 19전투비행단(1, 3선교구), 해군 1함대(4, 7선교구), 해병 2사단(남교회,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등 6개 부대를 방문한다.

기도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방 6개 부대에서 동시에 열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침해와 억압으로 억눌린 북한 동포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도록 기도한다. 또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국정을 할 수 있도록,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지휘관과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함께 중보기도한다.

당일 현지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같은 시간 본당 벨셀성전과 지성전에서도 기도회가 열리며, 각 가정과 일터에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는 장병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광림교회는 군복음화를 통한 청년선교와 군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교회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2011년 5사단 상승교회, 2013년 8사단 햇불교회, 2014년 해병대 연평교회, 2018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과훈광림교회 등 그동안 군부대에 수많은 교회를 건축 봉헌했다. 또한 각 선교구별로 군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진중세례식을 후원하고 위문예배 등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소현수 기자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결속을 다진 시간

2024 나사렛성가대 추계 수련회, 10월 3일 안산 자락길에서 열려

2024년 10월 3일(목) 오전 8시 40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감사를 느끼고 힐링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야유회를 통해 성가대의 결속이 더욱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나사렛성가대 대장 이남용 장로님의 개회 말씀과 시작 기도로 나사렛성가대의 추계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독립문 광장에 모인 80여 명의 나사렛성가대원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10여 분간의 준비운동을 마친 후 서대문구 둘레길 코스인 안산 자락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안산 자락길은 국내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테크길로 이제 막 시작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이었다. 정성으로 준비된 과봉을 먹으며 몸에 에너지를 불어 넣었고, 오랜만에 교회 밖에서 서로 대화하고 걸으며 친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가는 대원들은 솔선하여 뒤에 오는 대원

들을 챙기고, 함께 걸으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임은 참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약 세 시간의 고된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안산 자락길 종주를 마쳤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허기가 돌기 시작할 때쯤 근처 식사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나사렛성가대의 원로이신 김창환 장로님이 식사기도를 해주셨고, 대원들은 맛있는 점심을 즐겼다. 식사 시작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승부를 떠나 대원들 모두 웃음 가득 유쾌한 대결을 펼쳤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가대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

었다. 나사렛 대원들은 추계 수련회를 통해 영육 간에 은혜가 충만해졌고, 성가대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오랜 무더위로 지친 모든 대원에게 이번 수련회가 힐링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나사렛성

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찬양 공동체로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함께 찬양하자는 나사렛성가대 대장 이남용 장로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뜻깊은 야유회를 마쳤다.

백두환 집사(나사렛 성가대 총무)



목회현장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심방을 하던 중 한 성도님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언니가 질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

는 전화였습니다. 오래전 폐암으로 시작하여, 전신으로 퍼진 암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던 분이였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의 마음은 떨리는 음성을 통해 존각을 다투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긴급히 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심방을 가게 됐습니다.

성도님이 말한 것처럼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수가 차올라 있었고,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호흡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식도 없었고, 반응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언니를 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의 조카들은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셔서 병원에서 잠재왔다고 말하며 깨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니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참소하는 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심방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성도님으로부터 다시금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튿날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뵈 언니의 모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식도 또렷하셨고,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때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언니는 힘을 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니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조카들이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은 어머니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자녀들이 인도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조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품게 하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생명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박범규 목사(1선교구)

성도들의 안전과 은혜로운 예배를 책임집니다

예배위원회 - 곽유근 권사



봉사를 통해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는 곽유근 권사, 2006년부터 광림교회 예배위원회(위원장 김두원 장로) 일원으로 봉사하며 늘 교회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과 단정한 모습으로 2층 연결 통로에서 밝은 얼굴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곽유근 권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교회의 출입문에서부터 예배 위원 명찰을 달고 계신 봉사자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 예배위원회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배 위원은 성도님들이 흔히 알고 있듯이 교회 안내와 주보, 뉴스레터 배부, 각 예배당 문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맞이하고, 목사님 의전 등을 돕고 가끔 헌금 위원이 비어있을 때는 그 역할도 담당합니다. 예배당에서 성경책, 주보, 헌금봉투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가져다드리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도 매의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성도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분실, 도난, 상해 예방 등과 같은 위험 없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돕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위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전을 강조하는데 교회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나요?

네, 계단에서 사고가 특히 많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성도님들이 자주 있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선교실과 협력하거나 119를 부르기도 합니다.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행정실에 가서 신원 파악 후 가

족에게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 2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어요. 예배위원회 위원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봉사하셨는데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른 시간부터 예배가 있다 보니 술을 드시고 와서 차비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어요. 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실랑이가 있던 적도 있었어요. 전에는 신천지가 짝을 이뤄 오기도 했어요. 행동이 수상해 저희가 주시해서 보다 말을 걸면 바로 나가 버리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어르신 열댓

분이 팀을 이뤄 예배에 오셔서 미리 그분들 좌석에 성경책도 놔 드리며 친분을 유지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두 분으로 줄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림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 사명을 이어나갈 소망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예배 위원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문의 : 임시호 권사(예배위원회 총무)

010-5445-7557

박희훈 기자



예배 위원들과 함께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2-1



사도 요한이 본 환상 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와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충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다. 1세기 후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 교회들을 감독하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밧모 섬(파트모스 섬, 에게해의 작은 그리스 섬의 하나로 <요한계시록>의 관점과 글에 나타난 지역으로 잘 알려짐)에 유배를 당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밧모 섬은 종교 및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유배지였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화 정책을

펼쳤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에게해 동부 연안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밧모 섬에 유배된 것이었다. 그는 18개월 동안 밧모 섬에서 살다가 네로 황제 때에 풀려났다.

사도 요한의 최고 관심은 예배였다. 그는 육지에 있는 일곱 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 준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거나 몇몇 사람의 횡포에 시달리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환상은 그가 밧모 섬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찾아왔다.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일곱 개의 큰 촛대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 일곱 촛대에는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런 환상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내 오른편에서 본 일곱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며, 촛대의 일곱 가지는 바로 그 일곱 교회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으로 보여 주신 내용과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그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로 보내졌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 사도 요한_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귀도 레니의 작품.

▲ 사도 요한의 환상_ 밧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상과 환상을 보았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담겨 있다. 필립 드 샹파뉴의 작품.

<요한계시록>은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하다. 목회자이면서 시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암시 등을 즐겨 사용했다.

*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